

## 고등과학원에서의 생활을 뒤로히네...

글 \_ 조장현 · 전 고등과학원 수학기 조교수 (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점심을 먹고** 일찍 서둘러서인지 예정된 고속버스 시간보다 여유있게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죽전에 있는 집으로 올라와 가족과 지내다가 일요일 오후 다시 진주로 내려가는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직도 휴가나 외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이었던 생각이 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조만간 가족 모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의 국립 경상대학교 근처로 이사 오게 되면 이 역시 좋은 추억으로 남겠지만 말입니다.

처음 Farewell Essay 원고 요청을 받았을 때 글재주가 없는 저로서는 당연히 요청을 정중히 고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이 기회가 고등과학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지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과감히 글을 쓰기로 하였지만 몇 줄 안 되어 벌써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해 집니다.

2007년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저의 고등과학원의 생활은 많은 새로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하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어떠한 중압감 없이 마음껏 진행할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고등과학원에서의 연구생활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이나 도서를 포함하여 연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제게는 아주 편하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며 연구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해 준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안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며 지냈던 고등과학원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경상대학교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는 그동안 고등과학원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 지리산을 뒤로하고 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창가로 오버랩됩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행정적 도움을 주신 수학기, 정보지원, 재무예산, 행정, 기획, 홍보혁신, 경영관리팀의 여러 직원선생님들, 그동안 연구원 생활을 함께하며 생활을 해왔던 여러 박사님들, 그리고 늘 편안히 대해 주신 수학기 교수님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지방대학교로서는 유일하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내 송도 부지에 ‘송도 미주리대 경상대 국제 공동 캠퍼스’를 201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삼아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공동캠퍼스 내에 ‘GNU-MU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만들어 공동 연구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세계를 향한 21세기 글로벌 대학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동아시아의 고부가가치 연구 중심대학’이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학교입니다. 이와 같은 경상대학교의 이상은 제가 이곳으로 오기로 결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은 저의 연구 자세와 부합하며, 더욱이 이와 같은 경상대학교의 Vision과 더불어 여기서 좋은 꿈을 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저의 희망은 고등과학원의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제



처음 두루미로 착각하였던 경상대학교 정문 옆 연못에 서식하는 왜가리  
 (왜가리 : 황새목 백로과의 새. 전체길이 약 95cm. 등은 청회색으로 머리·목 부분과 아래쪽 대부분은 희고, 눈의 뒤쪽과 긴 깃털은 검다.  
 깃털·가슴·배도 검다. 큰 백로의 일종인데 때로는 두루미로 잘못 보는 경우도 있다. 얕은 물속에서 물고기·개구리·가재 등을 잡아먹는다. 교목의  
 꼭대기에 집을 만들며, 4~7월 번식기에 집단으로 번식한다. 호반·소택지·논·간석지 등에 서식하며 한국·중국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한다. 출처 :  
 야후백과사전)

가 아는 여러분들과의 떨어진 거리와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위로해 줍니다.

지난 여름까지 저는 고등과학원을 우리 고등과학원이라고 불렀고 이제는 경상대학교가 '우리 학교'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등과학원이라 부르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고등과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고등과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하고 즐거운 생활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휴가를 바닷가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이 아닌 거제와 삼천포 같은 남해안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그렇다면 그때 꼭 연락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진주 IC를 이제 막 빠져나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조장현 올림. [KIAS](#)